

# 감투홀릭



김민소장의  
당당평평

대한민국에는 감투가 지나치게 많다. 각종 단체와 정당은 물론 친목회나 교우회 등 필요 이상의 직함들이 존재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잠재적 의식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어느 때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누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주고받는다. 필자의 경험상 어느 때는 명함에 적혀있는 상대의 직함이 너무 많아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을 어필하기에만 급급하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알맹이가 꼭 찬 컨트츠는 없고, 사회로부터 무언가는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런 행태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각자가 포장해 서라도 자신을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다. 상대를 인정할 줄은 모르고 자신을 알릴 줄만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필자는 최근 이년 간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운영위원 활동을 해왔다. 부모님께서 평생 교직에 계셨고,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에 교육에 관련된 강연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정책과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또한 지방출신으로서 소위 일류대라 불리는 SKY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면 대한민국의 정서상 교육을 논할 만한 최소한의 자격은 되지 않나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지난 이년 간 많은 것을 느꼈다. 교육정책과 선생님들의 입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교운영위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구심이 든다. 지방의 회에 진출하려는 학부모들이나 사업상 이해관계를 따져 교육이라는 그럴싸한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에 관여하려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적잖은 걱정과 실망스러움이 역시 적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마인드도 없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교육에 관여하고 교육을 논할 최소한의 자격이 되는가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난감함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많은 위원을

만들어 사실상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든 지자체 및 정당의 흔해빠진 감투에 관심을 넘어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내용이나 본질에 대한 충성보다는 표면적이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허물뿐인 것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회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지 적잖이 염려가 되기도 한다. 껍데기보다는 내용이 알차고 딱 잘 실속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4차산업'이 대두되는 세상 아닌가. '지식' 보다는 '역량'을 앞으로는 강조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제 불필요한 감투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용과 진실함으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명함이 아닌 행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길 바란다.

흔한 말로 '감투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걸땀은 그만 부리고, 각자의 실질적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건강과 안녕으로 거듭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혁신과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대일리플리 정치연구소장

# 미투 계주, 이제 시작이다



기저수첩  
이범중  
(유통&사회부)

기적의 조건은 시련이다. 지난 10일 평창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예선 1조 경기에서 한국팀이 '영등방아'를 극복하고 1위를 차지했다. 막내 이유빈 선수가 4바퀴째에서 넘어지자 최민정 선수가 손과 손을 맞대고 순서를 넘겼다. 끈질긴 추격으로 캐나다 팀을 넘어선 한국 팀은 마침내 심석희 선수가 4분06초387을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했다.

이날 한국팀의 드라마는 옆에서 살피고 뒤에서 밀어주는 계주의 특성도 한몫

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미투(나도 당했다)' 역시 서로의 격려 없이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난 2016년 가을, 한 제보자는 자신이 겪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보하려다 정신적 고통으로 입을 닫았다. 지난달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직후 전화기를 들어 설득했다. 유부남인 직장 상사의 몸매 평가와 데이트 신청이 1년 동안 이어졌다는 제보가 시작됐다.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고, 상대방의 불기소 처분이유서 역시 부모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는 대답이 이어졌다. 반면 해당 기업은 상세한 설명 자료를 보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성으로 살면서 겪어야 할 '각개전투'의 단면이었다.

또 다른 기업에서 일한 여성은 "평소에는 점잖던 분이 술에 취하면 20대 초반

여직원을 남성 직원들이 모인 곳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말 못할 고충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 만난 미술계 한 관계자는 "문단이야 스타가 많아서 대중에게 알릴 스피커가 많지만, 이곳은 누가 말해도 일반인에게 무명일 뿐인 현실"을 말하며 씩씩해했다.

여성들은 시련을 겪을만큼 겪었다. 부모들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얼마나 자연상태에 가까운 표현이었는지를 깨닫고 있다. 내 딸이 아무리 노력한들, 폐쇄와 힘의 논리에 질식되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우리는 미투를 '사회 현상'이 아닌, 함께 뛰는 계주로 인식하고 돌려야 한다. 아직도 숨쉬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 노동자들이 거친 빙상을 떠돌고 있다.

/joker@metroseoul.co.kr

## 인사

- ◆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관리국장 오규택
- ◆ 행정안전부 ◇전보 (과장급) △안전소통담당관 조덕진 △경제조직과장 심영재 △사회조직과장 서정아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영성 △안전기획과장 정윤환 △예방안전과장 지만석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 허승원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장 박찬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박성진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장 이익수 △서울기록관 수집공과과장 임춘수 △부산기록관장 강성천 △이북5도 평안북도 사무국장 주광웅

- ◆ 교육부 △충청남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환식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순문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장 부이사관 구연희 △예산담당관 서기관 이영찬 △학술진흥과장 서기관 윤소영 △교육부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김주연 △외교부 서기관 채홍준 △고등교육정책실 서기관 김지연 △고등교육정책실 서기관 최민호 △교육부(뉴질랜드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정일형 △교육부(프랑스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김보경 △교육부(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파견) 서기관 김태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관 김성희
- ◆ 국토교통부 ◇승진 (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상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 (국장급) △연구성과정책관 이창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홍용택 △과학기술정책국장 류광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장 유국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장 권현준 △국립외교원 교육훈련과장 김광수 △국립대학교육훈련과장 송관호 ◇임용 (국장급) △비상안전기획관 김재근
- ◆ 환경부 ◇승진 전보 (실장급) △생활환경정책실장 유재철 ◇승진 (국장급) △대변인 박연재

- ◆ 공정거래위원회 ◇승진·파견 (국장급) △국방대학교 조홍선
- ◆ 국민권익위원회 ◇승진 (부이사관) △혁신행정담당관 김남두 △청탁금지제도과장 김원영 △경제제도개선과장 정혜영 △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구 ◇승진 (서기관) △운영지원과 최현 △민간협력담당관실 최승남 △청탁금지해석과 권기현 △민원조사기획과 공광연 △사회제도개선과 김상기
- ◆ 통계청 (국장급) △경제통계국장 송복철 (과장급) △감사담당관 이영택

## 부음

- ▲ 류정수씨 별세. 류동원(LG화학 나주공장 업무지원팀장)씨 부친상 = 10일 오후 8시 30분,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그린재례식장(신관 2층), 발인 12일 오전 10시. 062-250-4455
- ▲ 김한철(전 공무원관리공단 이사)씨 별세. 김우석(현 대건설 부장대우)·범석(동아일보 기자)씨 부친상, 조기상(테크리안 대표이사)·이상완(디칸솔루션 대표이사)씨 장인상 = 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89



이노비즈 CEO 과정 참여기업, 한중 자전거 여행 추진 11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는 오는 4월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100여 명 규모의 중국 원정 자전거여행을 위해 페리를 띄운다. 페리(위동웨리)와 연계한 중국 칭따오 자전거여행은 관광과 자전거여행을 접목한 콘셉트로 이는 국내에선 첫 시도이자 국내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자전거 콘텐츠 전문기업 케이벨로와 뷰인스, 에이치와이스타일, 청하우, 한라식품은 지난 6일 해외 자전거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케이벨로 이미란 대표(가운데)가 '한·중 자전거여행'을 위해 이노비즈 최고경영자 동문 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신한카드, 제주방송과 중고차 매매단지 업무협약 신한카드는 제주방송과 중고차 매매단지 설립 관련 양사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탁운태 제주방송 대표이사과 안중선 신한카드 MF사업그룹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롯데손보 신입사원, 지역사회 복지관 환경봉사 롯데손해보험 85기 신입사원 27명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봉사법인 남산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했다고 롯데손보가 11일 밝혔다. 롯데손보 신입사원 일동은 이날 남산원 아동을 위해 제설 작업 및 생활관 청소 등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했다. /롯데손보



미래에셋생명, 설 맞아 저소득층에 명절선물 전달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 30여명은 지난 8일 서울 동작제가 노인지원센터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를 찾아 관내 저소득층 노인 300여명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고 미래에셋생명이 11일 밝혔다. 계약서비스본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봉사단은 동작제가노인지원센터를 찾아 저소득층 노인 100여명에게 명절 음식세트와 차려서 차림을 도왔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선 관내 노인 100명과 함께 명절 음식세트를 만들고 신년카드를 작성했다. /미래에셋생명

# DGB대구銀, 설 명절 이동점포 운영

DGB대구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휴게소 모바일뱅크 운영, 신권 교환 및 복봉투 배부 등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명절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칠곡 동명휴게소 상행방향에서 DGB대구은행 이동점포 금융서비스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12m크기·16톤 규모의 대형트럭에 설치된 은행업무용 특수차량에서 일반 은행 업무는 물론 온라인 단말기, ATM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 1회 롤렛게임 이벤

트를 통해 선물도 증정하며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신권 교환, 세뱃돈 福(복)봉투 등을 한정 수량 배부할 예정이다.

설 명절 제수용품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서문시장 공영주차장에서 DGB대구은행 BC카드로 주차요금 결제 시 50%를 청구 할인한다. 최대 1만원까지(1일1인1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할인금액을 결제일 이용대금에서 차감 청구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집 국 장  
편집국장 이 집 국 장

인 체 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 고 문 의 021721-9851.3  
독 자 센 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